

기본이 안 된 KIA 이젠 쳐도 화조차 안난다



지우고 싶은 악몽의 주말 3연전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챔피언십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KIA는 시즌 첫 싹쓸이 패를 당했다. 호랑이를 재물 삼은 '사자 군단'은 1위에 오르며 본격적인 선두권 질주를 시작했다.

무너진 마운드 구멍난 수비 황당한 플레이 삼성에 3연패

실점으로 분전을 했지만 두 경기에서 연속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힘겨운 싸움이 전개됐다. 종잡을 수 없는 선발전이다. 이제 막 복귀한 김진우의 불확실함과 송은범의 기록 그리고 경험부족의 임준섭. 양현종과 홈런 만이 고군분투하며 선발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기분을 지키지 못한 플레이, 수비에 서도 완패
실점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경기 흐름을 바꾼 수비 실수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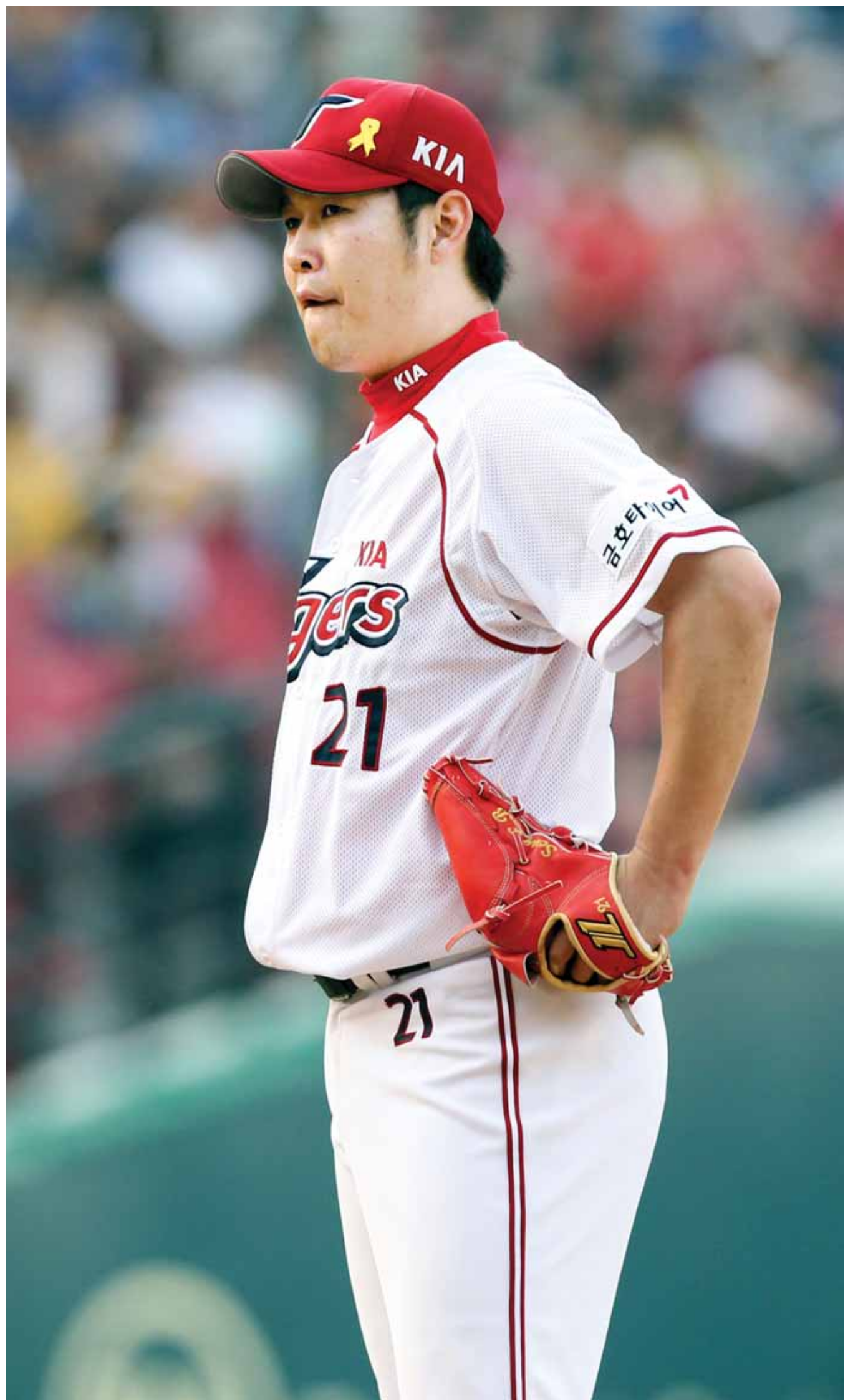
투수전이 진행된 16일은 수비 싸움에서 밀려 패배를 헌납했다. 이날 삼성 박해민은 특급 수비로 일약 스타가 됐다. 1-1로 맞선 6회 1사 1루에서 필의 큼직한 타구를 박해민이 펜스에 부딪히기만 누아했다. 상대 선발 마틴을 흔들 수 있는 장타가 플라이로 둔갑한 순간이었고, 이후 흐름은 삼성에 기울었다. 8회에는 유격수 고영우

가 공을 더듬으면서 홈 승부를 하지 못하고, 필드 옆으로 빠져나가는 타구를 잡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모두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은 플레이다.

17일에는 홈에서 '진기명기' 플레이가 나왔다. 3루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 박석민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평범한 태그 아웃이 예상됐던 상황. 포수 백용환이 박석민이 멈춰선 사이 완벽하게 태그를 하지 못했다. 1루로 눈을 돌리는 사이 박석민은 발을 내밀어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득점을 쟁겼다. 박석민의 재치라고 하기에는 황당한 백용환의 실수였다.

18일에도 보이지 않은 실책이 있었다. 2-1로 앞선 4회 임준섭이 박석민의 안타에 이어 이승엽·이지영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2-3됐다. 김상수를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2사 2루. 이어 2루에 있던 이지영이 도루를 시도했고, 포수 차일목이 빠르게 3루로 송구했다.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3루수 김주형의 베이스 커버가 늦었다. 이날을 종료하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삼성의 기만 살려주고 말았다. 결국 채태인의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4회에만 대거 6실점을 했다. 반면 KIA는 삼성 외야의 발빠른 수비에 여러 차례 가슴을 쳤다. 탄탄한 기본기에 집중력까지 좋은 우등생들에게 당한 완패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선발출전한 KIA 송은범이 3회 1사 2·3루에서 김상수에게 스리런을 허용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18일에도 임준섭이 조기 강판 되는 등 KIA는 투·타의 부진으로 시즌 첫 싹쓸이 패를 당했다. <KIA 타이거즈>

'실수연발' 백용환 포수에 "코치님 훈련 많이 많이 시켜주세요"

덕아웃 특·특·특

▲"코치님 많이 시켜주세요."

18일 홈팀 KIA의 훈련이 끝나고 원정팀 삼성의 훈련이 계속될 때까지도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한 선수가 있었다. 공을 받고 또 받고. 전날 쑥스러운 실수를 했던 백용환의 '지옥훈련'이었다. 전날 포수로 선발 출전했던 백용환은 3루수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3루 주자 박석민을 태그 하지 않은 채 머뭇거리다가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주며 자존심을 구겼다. 큰 실수를 저질렀던 백용환은 한 시간 가량 하체배 배터리 코치의 평고를 받느라 땀을 쏟았다.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백용환. 훈련을 끝내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던 투수들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백용환의 지옥훈련 현장을 지나쳤다. '아빠 미소'를 한 채 걸음을 옮기던 백전노장 김태영은 아예 "코치님 많이 시켜주세요!"라는 말까지 하며 백용환을 놀렸다. 물론 애정 어린 선배의 얘기였다. 잠시 숨을 고르던 백용환과 주먹을 마주친 김태영은 파이팅을 외쳐준 뒤 자리를 떠났다.

▲"구위라도 나쁘면..."

KIA는 지난 17일 선발로 나선 송은범이 2.1이닝 7피안타(3홈런) 9실점(8자책)으로 무너지면서 7-14 대패를 당했다. 계속되는 송은범의 몰러코스터 피칭. 코칭스태프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송은범의 난조가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동열 감독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경기 끝나고 코칭스태프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심리

적인 부분이 크다. 차라리 구위라도 나쁘면..."이라고 고민했다. 기술적인 부분에 따른 구위 문제라면 고민이 덜할 것 같다는 게 선 감독의 설명이었다. 한대화 수석코치의 얘기도 이와 비슷했다. 한 수석코치는 "지난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 공도 나쁘지 않은데 자기 볼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화구 승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한 투수는 "구위는 좋다. 커브와 체인지업 제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직구 슬라이더 승부 패턴을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 가면 충분히 위력적인 것이다"고 언급했다. 깊어가는 고민, 선 감독은 마운드의 '키플레이어'인 송은범에게 선발로서 더 기회를 주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필 "저, 월간 MVP 먹었어"

KIA 타이거즈 브렛 필이 구단 지정병원이 밝은 안과 21병원이 시상하는 4월 월간 MVP에 선정돼 지난 17일 삼성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필은 4월 한 달 20경기에 출전해 74타수 27안타(4홈런)로 0.365의 타율과 13타점, 14득점을 기록했다. 필은 시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류현진 복귀전 22일 메츠 원정 유력 시물레이션 피칭 '굿'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원소 선발 류현진(27)이 재활 마지막 단계인 시물레이션 피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 MLB닷컴은 지난 17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시물레이션 피칭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치에서 마이너리그 타자들을 상대로 실전에 가까운 투구를 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시물레이션 피칭에서 4이닝을 투구 수 60개로 막고 추가로 불펜피칭 15개를 하는 등 총 75개의 공을 던졌다"고 밝혔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의 공이 정말 좋았다"며 "이미 불펜피칭에서 좋은 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MLB닷컴은 "(폼 마름이 선발 등판할 차레인) 22일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뉴욕 메츠와의 원정경기에서 류현진이 복귀전을 치르고, 마름은 불펜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타선 폭발'

왕중왕전·황금사자기 16강, 제물포고에 7회 '콜드승'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왕중왕전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가 1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왕중왕전 겸 황금사자기 16강전에서 제물포고를 9-1, 7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4번 타자 채지선이 나홀로 3타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3회 광주일고가 연속 볼넷과 도루 등으로 1사 2·3루를 만들었다. 송동욱의 투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 정다운이 득점을 올렸고, 채지선이 중전안타로 남은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들였다.

광주일고는 3회말 제물포고 투타자 김태훈에게 좌월 솔로포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만 최지훈의 볼넷으로 시작된 5회 타자일순 하며 대거 5점을 뽑아냈다.

2사 2·3루에서 채지선이 2타점 적시타를 날리는 등 광주일고가 5타자 연속 안타로 5점을 만들었다. 7-1로 앞선 6회에는 사사구 4개와 상대 실책을 묶어 2점을 뽑으며 승리의 추를 기울였다.

선발로 출격한 김정현은 6.1이닝을 6피안타(1홈런) 3사사구 5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광주일고는 19일 오후 6시 유신고와 준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승혁, 9년만의 감격의 첫 우승

SK텔레콤오픈 골프

김승혁(28)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 데뷔한 지 9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승혁은 18일 인천 스키야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 7241야드)에서 열린 SK텔레콤오픈(총 상금 10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김승혁은 김경태(28·신한금융그룹), 이태희(30·리서앤캐시·이상 10언더파 278타)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05년 코리아투어에 데뷔한 김승혁은 9년 만이자 8번째 시즌에 첫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쁨을 맛봤다. 이전까지는 2011년 NH농협오픈과 2013년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의 공동 2위가 개인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우승으로 김승혁은 시즌 상금 2억 1150만원으로 박준원(2억2160만원)에 이어 상금 2위에 올랐다.

김승혁은 "4번홀에서 욕심 때문에 3퍼트도 더블 보기를 써냈으나 기분이 나쁘지 않고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전반에 좀 오락가락했지만, 후반에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브랜스던은 9언더파 279타로 경기를 마쳐 단독 4위에 올랐고, 최경주(44·SK텔레콤)는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단독 5위(8언더파 280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